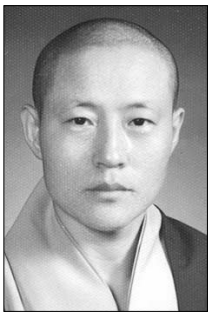


불복장 봉안내용 담은 '조상경' 最古본 발견

불상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의식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전인 <조상경(造像經)>의 최고(最古)본이 발견됐다. 또한 의례가 있어 그동안 밀교계 경전으로 알려졌던 <조상경>이 화엄사상을 드러낸 경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던 것으로 태경 스님이 1년여간의 자료 수집과 다른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최고본임이 밝혀졌다.

그동안 국내에 발견된 <조상경>은 1677년 팔영산 능가사본, 1720년 화장사본, 1746년의 김홍사본, 1824년의 금강사 유점사본 등 4가지 본으로 이번에 발견된 용천사본은 능가사본보다 100여년 앞선 판본이다.

태경 스님은 또 용천사본 <조상경>을 연구해 본 결과 그동안 의례를 다루고 있어 밀교경전으로 분류되었던 <조상경>이 화엄 사상을 드러낸 경전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태경 스님은 "화엄경"에서 도솔천에

있는 지장보살이나 수미산정에 있는 아수라 모두 달빛이 물에 비치듯이 초발심으로 보살행원의 공덕을 바다에 도장을 찍듯이 나타나는 것을 해인"이라며 "불복장에 오보병이 놓여지는 이유가 오보병에 가득 찬 정정한 물이 모든 중생의 본래 청

이와 더불어 태경 스님은 "조상경"은 진실의 <대장일람집>, 자연의 <요결상대교왕경>, 선무외의 <삼십지단석>, 시호의 <불모반야바라밀다대명관상의계> 등 4경 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삼십지단석>은 9-10세기경 고려에 전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불복장은 그 이전에 정형화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전 성립시기와 저자가 뚜렷이 알려져 있지 않은 <조상경>은 그동안 목판의 크기와 체제, 판각의 서체 등 판본 비교 연구는 있었으나 사상적인 연구나 주장은 전무했다.

또한 불복장에 좁쌀, 천 등의 유물이 왜 봉안되는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등 불복장 유물이 발견될 때마다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 해석을 하는데 학계의 의견

1575년 간행된 용천사본 일반 공개 팔영산 능가사본보다 100여년 앞서 태경 스님 "화엄사상 담긴 경전" 주장

정한 마음을 드러낸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오보병 이외에 돌, 보석, 부적 등 불복장에 봉안되는 복장물에 대해서도 그동안 밀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왜 봉안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었다"며 "화엄의 성기사상(性起思想)인 보현행원과 해인삼매를 통해 복장물의 봉안 의미에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부분했다.

<조상경>을 펴낸 운주사 김시열 사장은 "그동안 <조상경>에 대한 이해나 번역 자체가 아예 없었고 불복장 또한 규준이나 스님들이 경험적으로 봉안하던 것이 관례였다"며 "<조상경> 연구를 통해 복장물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4>

돌과 반도체

선사들이 대중에게 들려주는 법에는 선문답과 같은 말들이 포함된다. 그 비논리성(혹은 초논리성)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곤 한다. 그 말들은 깨달음의 경지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파격일 수도 있고, 깨달음의 느낌을 가장 가깝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 과학기술의 시대에 이러한 파격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또한 불자들의 숙제일 것이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신진대사를 하면서, 자신을 복제하는 능력을 생물의 정의로 들기도 한다. 무생물인 호르몬·피의 신진 대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생물의 작용을 이해하면 할수록 놀라운 신비를 느끼게 된다.

'돌 계집이 애 낳는 소식'이라는 경허 스님의 말씀은 깨달음의 소식을 표현한 대표적인 말이다. 돌은 무생물이므로 애를 낳을 수 없다. 따라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나가면, 황당한 비논리의 수사일 수 있

지구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 규소는 흔히 바닷모래를 이루기도 하고, 바위를 이루기도 한다. 재미있게도 생명을 이루는 기본 원소인 탄소와도 같이 규소는 바깥 전자를 4개 가지고 있는 원소이다. 그리고 탄소는 규소와 같은 배열을 이루어 금강석이 되는 것과 같이 규소는 같은 모양으로 실리콘 결정이 된다.

또한 탄소는 수소 등과 결합해서 탄수화물, 단백질과 같은 생물을 이루는 기

탄소와 규소, 같은 전자 배열 갖고도 결합방식과 하는 일 하늘과 땅 차이

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질책일 수도 있고, 또는 수행 중에 느끼는 자기의 사라짐,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의 애매해 짐, 그리고 간헐 있던 자아의 해방에 대한 느낌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른다.

세계 1류 기술로 자랑하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바로 이 규소로 구성된 실리콘 결정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술이다. 현미경으로 반도체 칩의 동작을 측정할 사람은 무생물인 돌이 가지는 수많은 기능들, 그리고 칩 내의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의 상호관계들이 생명 현상 만큼이나 오묘하고 복잡함을 느끼게 된다.

대하고 생물학 첫 시간에 교수들은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점을 밝히려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명백한 차이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두개의 개념이 실제 따지고 들어가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다. 흔히 생물만의 특징이라고 생각 하는 자산을 복제하는 능력은 무생물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실제로 돌이 비로 부터 받은 돌과 흙에 섞여 있는 돌의 성분으로부터 자기의 모양을 복제하는 능력을 보면 참으로 신비하기까지 하다.

같은 전자 배열을 가진 탄소는 생물을 만드는 데 비해서 실리콘은 왜 무생물인 반도체, 혹은 돌이 되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무생물이면서도 생명을 이루는 탄소와 비슷한 전자배열을 가진 돌에게서 애를 낳는 격외를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가 과연 단순히 격외인지, 과학에서 말하지 못하는 진리를 말하는 지를 다같이 깊이 고민해 볼 일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회암사 선각왕사비 불교중앙박물관으로

경기도박물관에 보관되어온 보물 제387호 회암사 선각왕사비(線刻王師碑·사지)가 3월 14일 김홍시 성보보존위원회 전문위원의 감독하에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이관됐다.



고려말 나옹화상(懶翁和尚) 승탑 비로 우왕 3년(1377년) 회암사에 세워진 선각왕사비는 1973년 산불로 파손된 것을 1998년부터 3년에 걸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를 했으나 이후 보관사의 문제로 그동안 경기도박물관에 기탁 보관되어 왔다.

동국대박물관과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조계종 소유 성보문화재를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관할 계획이다.

고려말 대학자인 목은 이색이 비문을 짓고 조선 태종 때 영정을 역임한 권중화가 예서로 글을 쓴 회암사 선각왕사비는 대리석으로 이수(石)와 비신(碑身)을 따로 만들지 않고 같이 만든 것으로 고려말 대표적인 비로 평가받고 있다.

조계종 문화국장 혜조 스님은 "이번 성보 이관은 불교중앙박물관 수장시설과 성보관리 체계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종단 성보문화재를 원활하게 회수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교중앙박물관측 선각왕사비 외에도

김두식 기자

깨달음의 원동력은 '자연과의 교감'

보조사상연구회 · 한국선학회 월례발표

"<전등록>은 법계의 구성에 따른 중층적 분류는 물론 해당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식물과 무정물(무기물질)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다."

3월 18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동국대 최동순 강사는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생태관'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최동순 강사는 <전등록>에 수용된 불교적 세계관과 생태학적 위치에 대해 <전등록>에 수록된 공안에 나타난 선사들의 자연관을 중심으로 불교의 법계관과 동물관 등의 대상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으로 논리를 풀어냈다.

최동순 강사는 특히 "부처님도 밝은 별을 보고 대각을 이루었고 수많은 선사들 또한 자연생태에 대한 무한한 교감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 '불살생의 생태적 문화에 대하여'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김치은 강사는 <법감경> <대반열반경> <능가경> 등에 나타난 불살생 계율을 예로 들며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준비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선학회도 제41차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3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릴 학술발표회는 성곡관대 정현수 교수의 논문 '십현담에 대하여'와 고려대 주호찬 교수의 '벽송지엄 벽송당 아로송에 대하여'가 1부와 2부에서 각각 발표된다. 총회기간으로는 '2005 학회활동 및 회계감사' '제4기 임원선출'이 상정된다.

노병철 기자

(불자정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02) 2004-8213~6 02)732-1522 (直)
- 전승: (02) 737-0696
- e-mail: jabi1522@empal.com

사찰터안내

- 위치: 충남 금산군 신정리(임)
- 42,000평(관리, 농림지역) 충남 최고의 청정지역
- 저수지 접해있음, 자연경관 최고, 부지까지 전임로 확보
- 사찰부지, 체험휴양관광지 연수원, 최고적지
- 가액: 평당 25,000원

042)525-0035 016-449-1405

사찰안내

- 위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 40평(인법당)
- 법당: 18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만원

02)918-1215 016-237-3006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옥산동
- 법당: 30평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3443-0277

수도권 토지분양 안내

- 최고의 투자처
- 역세권, 확정, 진행지
- 도시지역, 관리지역
- 도로근접
- 안정, 수익, 환금성 탁월

011-306-0745

사찰터안내

- 위치: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대지 170평, 전 480평
- 가액: 6500만원
- 산세수려하고, 수행기도처로 적합

011-594-1526

찾습니다

서울근교 산중사찰을 전세 놓으실 분은 연락주십시오

011-436-0097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영동읍에서 20분거리
- 평수: 198평
- 건물 2동, 법당 1, 요사채 1,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가액: 1억 2천만원

043)744-3331 011-491-2347

실버타운 및 찜질방 적지

- 위치: 충남 대안군 휴양림 접경지역
- 경관: 폭포, 계곡이 있는 산세수려한 청정지역
- 부지: 임야, 전, 답, 대지 등 2만3천평(관리지역)
- 부대시설: 2층복조주택 및 황토가마 등 200여평 (사찰지로도 적합)

※임대, 매매 가능

011-9878-4159

토굴임대

- 위치: 파주시 법원읍 응담리 309-3
- 큰방1 작은방2 법당 주방입식 지하수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완비 (몸만오시면됨 가정살림도 가능)
- 전세 2000만원 월세 1000만원 월 10만원 (현재 비어 있음)
- 그림 글 수도 수양 공부 작품활동적합 단 무속이나 무녀보살은 일체사양
- 자가운전자 필(스님우대)

TEL. 031)912-7114

—산 청담사 주지 벽담 합장

찬란하게 빛나는 부처님가피!

57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대한 청경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결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란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물론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신규 동참자 특별 선물
청경스님께서 밝은 기운으로 한 호흡에 握筆로 쓰신 "佛"자 붓글씨,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날 짜 : 2006년 3월 25일(토요일) 저녁 9시 ~ 2006년 3월 26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크스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 수건(하의)2매, 간단한 간식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않습니다.

장소 : 하산마음선원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456-4994, 0035
☞ 지하철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 방향 200M 이매스 가구 4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산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미 최희전 50M 경우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